"눈물나고 가슴 뜨거운 불교 돼야"

조성택 교수, 신도교육 현대적 방향 '감성코드' 제시

"오늘날 한국불교에서 감동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불교가 지나치게 교리화, 원리화 됐기 때문이다. 신도교육은 '교리'로 부터 탈피해 가르침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신행이며 믿음을 건강하게 하는 수행으로까지 평가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교리공부에 치중한 신도교육은 불교 생활화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런 한계를 지적하고 신도교육의 체제를 근본부터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조성택 고려대 교수는 9월 8일 불광연구원(원장 지홍)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불교신도교육의 현대적 방향과 내용' 세미나에서 현행 신도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승불교 정신에 입각한 실천성 강화'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조성택 교수는 이날 '신도교육의 현대적 방향과 내용' 발제를 통해 "현재 한국불교는 지나치게 교리화, 또는 원리화 돼 일상적 삶의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교를 교리로 부터 구출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교육체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불교의 교리화, 이론화의 원인으로 세가지를 꼽았다.

조 교수는 "수행의 목적을 '깨달음'에만 두는 잘못된 수행관, 깨달음을 신비적 체험으로 간주하는 출가전통, 불교를 생활과 분리해 '텍스트'로 환원하고 전통을 빙자한 박제화를 이끈 학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러한 풍토로 인해 일반 신도들도 교리 이해를 수행척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또 "심지어 어려운 법문, 논문을 '스님의 높은 경지', '학자의 높은 인식'으로 이해하는 풍토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신도교육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교리에서 벗어나 불교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리공부 감동없다 지적
체험중시 교육 내용 개편
교육원, 교과목 재편 시사

"우리가 자연,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느낄때는 연기법이라는 교리를 머리로 이해했을 때가 아니라 자연과 나의 미래가 밀접하게 얽혔구나 하고 직접적으로 그 감성을 느꼈을 때입니다. 입으로만 보살, 머리로만 부처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감성적 체험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신도교육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조 교수는 "신도교육의 대부분이 스님들로부터 이뤄지는 만큼 스님과 주고받는 대화뿐만 아니라 스님의 일거수 일투족이 신도들의 교육내용이 된다. 어떤 교육체계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신도교육의 핵심은 결국 스님들의 일상모습과 그로인한 감성적 체험"이라며 청정승단의 모습을 기대했다.

조성택 교수는 종단 교육체계에 대해 "대승불교나 선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기불교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며 "이는 일종의 '초기불교 토대주의'란 강박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신도교육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라며 "불교의 교리화는 오늘날 우리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라고 조 교수의 지적에 동의했다.

법인 스님은 여기에 덧붙여 "현행 불교대학과정은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불교대학의 교과목을 차용해 축소한 수준"이라며 "교과목을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이제는 봉사', 한국신도교육 실천성 확보가 관건

불광연구원, 제15차 학술연찬회서 한 목소리

한국불교의 신도교육은 지난 40년간의 시간을 거쳐 지금의 형태로 정착됐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신도교육에 대한 전반을 살펴보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서 김관태 사찰경영컨설팅 살림 대표의 '한국불교 신도교육의 역사와 현황', 이창익 원광대 교수의 '타종교의 신도교육의 내용과 방향', 조성택 고려대 교수의 '신도교육의 현대적 방향과 내용' 등이 발표됐다.

김관태 사찰경영컨설팅 살림 대표는 "현행 교육은 10여 년 전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세월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교육체계와 교과목,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관태 대표는 "신도교육이 성공하려면 '신해행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 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각 신도회에 '감투'가 아닌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익 원광대 교수는 "기독교 신도교육의 대부분은 '성서 교육'과 '선교'으로 진행된다"며 "기독교는 종교실천을 중시하는 반면 불교는 종교적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창익 교수는 기독교계 종립학교 현황으로 종립학교 중 초등학교의 경우 불교 1, 개신교 22, 천주교 6, 기타종교 8, 중학교의 경우 불교 15, 개신교 90, 천주교 28, 기타종교 88, 고등학교의 경우 불교 16, 개신교 126, 천주교 38, 기타종교 117개의 열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런 방향이 종립학교 설립, 대학문화 저변확대 등에 불교가 뒤처지는 결과를 낳았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표〉한국신도교육의 역사 – 김관태 사찰경영컨설팅 살림 대표 제공

1970년대	현대식 신도교육의 출발 불교교양대학 시작 재가불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대학 설립	1972년	6월 서울신도회 불교교양대학 설립
		1973년	5월 대원불교강원, 대원정사 건립
		1974년	한국불교연구원 창립
1980년대	교양대학의 확산기 불교교양대학의 전국적 확산 재가불자들의 별도 교육공간 마련해 시작	1980년	7월 조계종 포교사 양성
		1982년	동산반야회 교양강좌 개설
		1984년	봉은사 봉은불교학당 개원
1990년대	신도교육의 정비기 사찰 신도교육기관의 증가 불교교양대학 실태조사 및 등록 규정 도입	1994년	포교원 개원 및 신도교육 정비 실시
		1995년	9월 최초신도교재 〈불교입문〉 발간
		1997년	총 76곳 불교교양대학 등록
2000년대	신도교육 정착기 신도교육 방향 재검토 교재 발간 및 교육과정 제도화 실시	2000년	7월 신도교육위원회 구성
		2001년	5월 신도기본교육 시행령 제정
		2011년	총 109곳 불교교양대학 등록 및 인가

"삼회향놀이는 대승보살사상 실현 예술"

구인사 삼회향놀이 문화재 지정 위한 학술대회
천태종 9월 11일 구인사서 시연…2천여명 참석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25호인 구인사 삼회향놀이의 문화재 지정과 보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천태종(총무원장직무대행 무원)은 9월 11일 단양 구인사에서 삼회향놀이보존회장 춘광 스님을 비롯한 천태종 스님들과 중국불교협회 스님, 충북 문화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회향놀이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고려시대 성행 후 조선시대 명맥이 끊긴 삼회향놀이는 영산재 본의식 이후 뒤풀이 의식으로 천태종이 유일하게 전승하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영진 前청주대 교수가 '삼회향놀이와 문화재 지정의의'를, 이창식 세명대 교수가 '구인사 삼회향놀이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영진 前 교수는 "삼회향놀이는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이타적인 회향으로, 누구나 서원하면 성불할 수 있다는 대승불교의 보살사상을 실현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승과 속이 놀이를 통해 하나가 되는 삼회향놀이는 음악 · 무용 · 연극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적 불교민속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식 교수는 "의식의 규범이 변하듯 놀이도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검증 수정은 불가피하다"며 "지정 과정에서 논의된 계보 문제, 핵심 과정 정리 등이 필요하고, 전승법문을 확고히 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인사 삼회향놀이보존회장 춘광 스님(천태종 감사원장)은 "불교문화가 그 역할을 해나가는데 구인사 삼회향놀이가 그 몫을 담당할 것"이라며 "불교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학술대회가 삼회향의 깊은 뜻을 많은 이들에게 널리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00명이 모인 가운데 시연된 삼회향 놀이와 영산대재 회향식의 한 장면

한편, 학술대회 후 오후 2시부터는 설법보전 앞마당에서 20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삼회향놀이 시연이 펼쳐졌다. 시연은 총 5과장으로 진행됐다.

제1과장(도입)은 △길놀음 △법고춤 △합장게, 제2과장(땅설법)은 법주와 바라지의 대사, 제3과장(범패와 작법)은 △범패 △작법 △화청, 제4과장(백희잡기)은 법주와 바라지의 대사 △공양간 보살의 장기자랑 △위의 등 다른 이들의 호응, 제5과장(회향)은 △법주와 바라지의 대사 △대중과 함께 회향하는 모습 △회향법문 순으로 펼쳐졌다.

천태종은 삼회향놀이 시연 직후 영산대재 · 생전예수재 회향식을 봉행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 뽑는다

9월 30일까지 접수, 정기간행물 논문도 가능

〈불교평론〉이 올해 불교사상의 사회적 실천에 기여한 논문을 대상으로 '올해의 논문'을 뽑는다.

불교평론의 올해의 논문상은 2007년 제정된 이후 불교사상의 현대적 해석과 사회현상의 불교적 시각 조명을 주도해 온 논문을 대상으로 수여돼 왔다.

상금 500만원으로 학술지 등재여부 관계없이 2011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게재된 논문으로 비학술적 성격의 논문도 신청받는다. 또 학술지가 아닌 정기간행물 게재 논문도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논문이 게재된 간행물 1부 및 논문 원본파일을 9월 30일까지 관련 학회 및 연구소의 장이나 교계 학술 담당기자, 본지 편집위원 및 자문위원 등의 추천을 받아 〈불교평론〉 편집실에 제출하면 된다. 추천은 논문 작성자 본인의 자천도 가능하다. (02)739-5781

노덕현 기자

해인사 판전 앞 전나무, 천연기념물로

문화재청, 9월 10일 지정 예고…수령 250년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9월 10일 합천 해인사 판전 앞 학사대 전나무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는 수령이 250여 년 된 나무로 팔만대장경판을 소장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 옆에서 있으며 현재 경상남도 기념물 제215호이다.

학사대(學士臺)는 신라시대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 857~?) 선생이 해인사 대적광전 주변에 작은 정자를 짓고 선생이 역임한 한림학사란 벼슬 이름을 딴 것이다. 최치원 선생이 가야금을 켜면 학이 날아와 고운 소리를 들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학사대 전나무는 최치원 선생이 지팡이를 꽂아 나무로 변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문화재청은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에 대하여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중에 수렴된 이해 관계자와 각계의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화제의 신간
작대기 風水
풍수지리는 自然現象이다.

자연의 理致를 공부하는 한 分野인 것이다.
태어나서 살다 죽는 모든 과정들이 因緣과 條件과 理由가 있는 것이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땅과 나의 인연은 시작되는 것이고 태어나서 땅을 밟고 살다 죽는 순간까지 땅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며, 죽어서 땅에 묻히면서도 땅과의 인연을 떠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나의 八字를 어떤 이유에 의해 땅으로부터 받은 결과이며 잘 사는 것도 땅의 힘으로 부터 받은 선물일 뿐이다.
풍수의 낭만(浪漫)은 온화한 들판의 조화로움에 있다. 들판이 어디 그냥 들판이겠는가? 그 속의 그림을 감상할 수 없다면 어떻게 재미를 느끼며 자연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세상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공평한 것이므로 남을 부러워 할 필요도 자기 자신을 자책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 이현당 지음 / 신국판 / 364쪽 / 정가 20,000원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四柱 사주풀이의 법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전국 서점 판매중!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육임이 보인다 |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子平眞詮精解 | 우명 서상덕 역 · 저/신국판/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 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9월 중
◆ 개강일시 : 2012년 9월 개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